

# 202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⑤	5	②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④	17	⑤	18	①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②	24	③	25	①
26	①	27	⑤	28	②	29	②	30	③
31	②	32	④	33	①	34	④	35	③
36	④	37	⑤	38	②	39	①	40	④
41	④	42	③	43	②	44	⑤	45	④

### 해설

#### \*\* 화법 \*\*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 환경 3, 4번 달걀이라는 통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통계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목소리를 크게 하며'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에게 달걀을 살 때 난각 코드를 확인하여 신선하고 질 좋은 달걀을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난각 코드를 주민등록번호에 빗대어 표현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A4 용지를 보여 주며 청중이 기존 케이지의 면적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발표 자료 활용하기

[자료 1]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장의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에는 동물 복지 인증 달걀이 생산되는 사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2]를 제시해야 한다.

①, ② [자료 1]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난각 코드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난각 코드를 구성하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료 3]은 기존 케이지와 개선 케이지의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사용할 수 있다.

#### 3. [출제의도] 청중의 질문 파악하기

3문단에는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닭들의 사육 환경이 개선되면 닭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적은 질 좋은 달걀을 먹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의 질문은 ㉠이 적절하다.

#### \*\* 화법·작문 \*\*

#### 4. [출제의도] 작문 및 화법 상황 파악하기

(나)의 대화 참여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뼉을 치는 비언어

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① (나)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다. ③ (가)의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의사소통 수단의 양방향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학생 2'와 '학생 3'은 학생회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 사항에서 본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생 3'은 '학생 참여 예산제'라는 잘 알지 못하는 용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에 일부 동의하나,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지도 않는다. ⑤ '학생 2'가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은 [B]에만 해당한다.

####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나)에는 제안이 실현되면 뿌듯할 것이고 학교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다)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① 카페라는 공간적 특성이 가지는 효과에 따른 면학실 개선의 기대 효과는 5문단에, ② '카공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은 2문단에, ④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면학실 개선의 이유는 2문단에, ⑤ 다양한 형태의 책상을 구비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은 3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 7. [출제의도] 건의문의 해결 방안 평가하기

㉡은 주장이나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따뜻한 카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근거로 기존의 면학실 분위기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다)에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주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공평한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면학실 형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참작하여 기존 면학실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다른 학교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 작문 \*\*

####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글쓴이가 글을 통해 재사용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알리고는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① 재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2, 3문단에 제시하였다. ② 재사용의 시의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1문단에 사용하였다. ④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는 점을 1문단에 제시하였다. ⑤ 재사용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활용과의 차이를 2 문단에 설명하였다.

#### 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ㄴ은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ㄷ은 아이스 팩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쓰레기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의 사례와 그 효과를 언급한 것이므로, (나)의 내용에 재활용 시스템이 정비될수록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ㄴ은 독일,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빈 병 재사용률이 낮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우리나라의 낮은 재사용 비율을 언급한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ㄴ은 리필 스테이션에서의 제품 구입 가격이 약 35% 저렴함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ㄴ을 활용하여 제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ㄷ은 아이스 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재사용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실천 방법으로 아이스 팩 재사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ㄴ은 재사용 비율을 높이면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료이고, ㄷ은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의 효과를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는 실천 방법의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고쳐 쓴 [A]에는 글의 주제인 '재사용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강조되도록 글의 내용인 재사용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 방법이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은 ②가 적절하다.

#### \*\* 문법 \*\*

#### 11. [출제의도]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구별하기

4문단에 따르면 '믿는'의 '믿-'은 비음인 'ㄴ' 앞에 평파열음인 'ㄷ'이 올 수 없어 '민-'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5문단에 따르면 '안고'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안-' 뒤에서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경우로, '-고'는 비음인 'ㄴ' 뒤에 'ㄱ, ㄷ, ㅌ'과 같은 자음이 오지 못해 '-꼬'로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 12. [출제의도] 이형태의 특징 탐구하기

⑤의 '책'은 환경에 따라 '책[채기]', '공책은 [공책근]', '책도[책또]'에서는 '[책]'으로 '책만[책만]', '책에서'는 '[책]'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형태가 복수로 존재하여 기본형을 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의 '닭'은 환경에 따라 '[닭]', '[당]' 등으로 실현되며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⑤ ㉡의 '잇'은 환경에 따라 '[입]', '[임]' 등으로 실현되므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인 '잇'을 기본형으로 설정한다.

#### 13. [출제의도] 피동 표현 탐구하기

㉡에서 '대통령'을 뽑은 행위의 주체는 '국민들'이다. ㉢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① ㉠에서 쏘는 행위의 주체는 '발'이고 행위의 대상은 '그'이다. ㉠은 '그'를 부각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② ㉠은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인 '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은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⑤ ㉢은 '날씨'를 낀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탐구하기

ㄴ은 홀문장으로 서술어는 '좋아한다' 1개이며, ㄷ은 겹문장 중 이어진문장으로 서술어는 '시인이자'와 '선생님이다' 2개이다.

① ㄱ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주어 '나'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 '키가 크다'로 이루어져 있고, '키가 크다'는 주어 '키가'와 서술어 '크다'로 이루어져 있다. ㄷ은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의 주어 '그녀는', 서술어 '시인이자', 뒤 절의 주어 '그녀는', 서술어 '선생님이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ㄱ과 ㄷ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로 동일하다. ② ㄱ은 '나는'이 안은문장의 주어이고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ㄷ은 '그녀가 사과를 먹고'와 '나는 배를 먹는다'라는 2개의 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따라서 ㄱ, 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 있다. ④ ㄴ의 '나는'은 주어, '여름만'은 목적어이고, ㄷ의 '그녀가', '나는'은 주어, '사과를', '배를'은 목적어이므로 ㄴ과 ㄷ은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 ⑤ ㄷ과 ㄷ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ㄷ은 '-자'라는 대등적 연결 어미를, ㄷ은 '-고'라는 대등적 연결 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시제 파악하기

㉠의 현대어 '가겠습니다'를 통해 ㉠은 동사의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한 '가리이다'이다. ㉡의 현대어 '스승이시다'를 통해 ㉡은 '체언+이다'의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스승이시다'이다. ㉢의 현대어 '묻는다'를 통해 ㉢은 동사의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한 '묻는다'이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이황, 「도산십이곡」 (나) 이희승, 「뒤지가 진적」

16.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는 학문에 힘쓰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는 글을 읽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언학 제6수>에서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은 학문하는 것이 우부도 알면 할 정도로 쉽고 성인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본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① <언지 제2수>에서 '연하'와 '풍월'은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연 속에 사는 것을 나타낸다. '허물'은 선한 본성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 ② <언학 제4수>에서 다른 것에 '맛'을 두지 않으려는 것은 학문에 힘쓰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것으로, 앞으로 학문에 열중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③ <언지 제1수>에서 '천석고향'을 고치지 않으려는 것은 자연 속에 살며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겠다는 것으로, 이황이 제자들에게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언학 제3수>에서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는 것은 학문에 힘쓰겠다는 것으로, 제자들이 마음에 새길 만큼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황이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효과 파악하기

㉠은 '순풍'이 죽지 않았고 '인성'이 어질다는 판단을 대조적인 어휘인 '거짓말'과 '울흔말'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순풍이 죽다 하니', '인성이 어지다 하니'로 인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준 영향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③ ㉡에는 자신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으나, 우회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는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과 ㉤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고품이 풍부한 경우회보라는 잡지를 뒤지로 공급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없다.

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뒤지'를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이 '귀중한 읽을거리'로 대하는 것은 글쓴이가 일제 강점기 투옥 생활에서 읽을거리를 접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한결 지루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는 것만 같'다고 여기는 것은 감방에서 글을 읽을 때 시간이 쉽게 지나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글을 읽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글을 읽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 각각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 가며 보는 것'은 글쓴이와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노력하여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 가며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글을 읽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글을 읽고자 하는 의욕이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사회 \*\*

□ 출전: (가) 홍성방, 「헌법학」 (나) 허영, 「한국헌법론」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헌법의 특질인 '최고규범성', '자기보장성', '권력제한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헌법해석학에 영향을 미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와 (나) 모두 이러한 정보들은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가)는 헌법의 특질 세 가지를 설명할 뿐 종합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의 2, 3, 4문단은 각 헌법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보장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라 한다.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일반 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본법으로 인정받는데, 이를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고 한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장한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의 '권력제한성'이라 한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예로 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따르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강제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에 좌우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입법부의 독자성 보장'이 아닌 '입법부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는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산업화·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통합론적 헌법학자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다원적 산업 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에 대한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비판으로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는 ②가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는 존재적 요소를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는 ㉠ 구청장·군수·시장 등이 대형 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 해고예고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일부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라고 기술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를 '경제주체 간의 조화(헌법 제119조 제2항)'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할 때에도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와 관련한 '입법자의 권한' 역시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

의 4문단에 따르면, 통합론적 헌법관에서는 헌법을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㉔에는 '경제의 민주화(헌법 제 119조 제2항)'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㉑은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관례, 유행,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㉒에서 '따르다'는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㉓에서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㉔에서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㉕에서 '따르다'는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인문 \*\***

□ 출전: 강신주, 『철학 vs 철학』

**26. [출제의도] 분야에 따른 독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서양철학에서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논의를 피히테와 니체를 중심으로 기술한 글로,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는 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상가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① 1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기억이 이데아를 인식하는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보다 뛰어나다는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가 진리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망각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식하며 기억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유 전통을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음식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듯이 기억이 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㉑은 기억, ㉒은 'A는 A이다'라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명제, ㉓은 자기의식이다. ㉔이 있기 위해서는 ㉑을 바탕으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해야 하므로, ㉑이 가능해야만 ㉔도 가능하다는 ㉒가 적절하다.

① ㉑이 있어야 ㉔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④ ㉑을 통해 ㉔이 가능하다. ⑤ ㉔이 있기 위해서는 ㉒이 아닌 ㉑이 전제되어야 한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라는 형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주장으로 현실화된다면 '과거의 시험은 현재의 시험이다'이다. 그러므로 ㉒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을은 자신의 지갑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 주신 지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지갑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피히테의 관점에서 을은 과거의 지갑을 기억하고 있고 이는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히테는 을이 기억의 능력을 통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③ 니체는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을은 지갑을 새로

사기 싫다고 하면서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 주신 지갑이 익숙해서 좋다고 하므로,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④ 니체는 망각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았으므로, 지난 시험을 잊고 국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을이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⑤ 니체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순진무구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는 만들어진 모래성이 부서지더라도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므로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니체는 을이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에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③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의 '낯설다'는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난해(難解)하고'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풀거나 해결하기 어렵고'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의 '뛰어나다'는 다른 것보다 낫다는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우월(優越)한'과 바꿔 쓸 수 있다. ④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의 '되찾다'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회복(回復)한'과 바꿔 쓸 수 있다. ⑤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찾아내다'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낸다는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발견(發見)하고자'로 바꿔 쓸 수 있다.

**\*\* 현대소설 \*\***

□ 출전: 양귀자, 『모순』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인생의 모순을 둘러싼 자기 내면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듬지 않고 인물의 자각되지 않았던 무의식적 욕망을 논리적 인과 없이 서술하는 특징이 있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이모의 가르침대로'라면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김장우를 선택해야 하지만, 최종 결혼 상대로 나영규를 스스로 선택하였기에 '나'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기 위해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김장우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성숙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나'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일 년쯤 전에' '나'는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년쯤'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게 된다. 이것은 '일 년쯤' 사이의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싼 일련의 경험을 통해 인생이란 것이 아무리 탐구해도 실수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 특성 파악하기**

어머니는 과거에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 책'을 읽었고,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는 진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책'을 읽고 있다. 미래에 '나'의 어머니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

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므로 미래에도 어머니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난해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독서'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행위를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이모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나'는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나 완전히 불행하기만 한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나'는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나'가 불행을 거부하기 위해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㉔는 적절하지 않다.

① 병든 아버지의 간호와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바쁘고 불행해 보이지만, 오히려 '나날이 생기를 더해' 가며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불행의 이면에 있는 행복'이라는 삶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밖으로만 떠도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일이 모순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③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 동안 '나'는 하나의 개념에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반대어 같은, 정반대 조건의 나영규와 김장우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해야 할지 '살필 수 있는 만큼' 다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한다. 이를 통해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생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난하여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와 정반대 삶을 살았던 이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지만, 이모는 자신의 삶을 '한없는 불행'으로 인식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모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고 이런 자신의 모순된 삶을 '무덤 속 같은 평온'의 상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과학 \*\***

□ 출전: 김인선, 『생물과 독』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식물 독의 주성분인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일컫는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켜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호흡 곤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복어의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은 복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 유입되어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코브라에게 물리면 오피오톡신이 유입되어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이 방해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 유입되어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오피오톡신과 크로탈로톡신의 작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5문단에 따르면,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독을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트로핀이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는 이유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은 모두 신경 세포에서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① 신경 세포에서는 농도의 차이에 의해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활동 전위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어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코니틴은 점차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가 없어지도록 함을 알 수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하여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에 변화가 없다. ②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 두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도록 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하므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③ 독이 아세틸콜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은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못하게 한다.

3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카리브도톡신은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도록 하여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일으킨다. 따라서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스코폴라민은 몸속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므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킨다. 카리브도톡신은 아세틸콜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므로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일으키고 근육을 수축시킨다. ④ 스코폴라민은 염기성이므로 해독제로 산성 물질을 활용할 수 있고,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계열이므로 해독제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A는 앞에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민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물에게 먹이지 않았으므로 A에게 스코폴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B는 카리브도톡신을 이용해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B에게 카리브도톡신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나) 김기택, 「벽」

39.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항시 우리들 ~ 것이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에서, (나)는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에서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도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에서 '푸른, 누구' 등의 시어와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한 세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나)에서 '벽, 할머니, 있었다' 등의 시어가 반복되고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벽이 되어 있었다, 벽이 되고 있었다' 등의 변주가 활용되고 있으나 열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는 '푸른'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계절적 배

경이나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40. [출제의도] 시의 의미 파악하기

[C]는 권태롭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욕망을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에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C]는 물줄기처럼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① [A]는 '기다린 것이 오지 않는다'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더디고 나쁜한 세월'의 권태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하면서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B]는 '푸른 싹'이 돋는 것과 같은 생기를 있는 삶을 기대하지만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처럼 비관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㉔ '더'는 승객들이 할머니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는 표현이므로, 속박된 상황을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 '헛되이'는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할머니의 행동이 소용이 없으며, 앞의 '혼자'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혼자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㉒ '튼튼한'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의 견고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의 어려움을 심화시킨다. ③ ㉓ '조금도'는 할머니가 꿈틀거리지만 '벽'으로 표현된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⑤ ㉕ '견고한'은 '벽'으로 표현된 승객의 상황이 변화 없이 단단하게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와 이러한 삶을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그 소망이 굳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윤기나는 석탄층'이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기대와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현실에 맞서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는 열구리에서 꿈지락거리는 '작은 할머니'의 모습과 높은 '벽'으로 형상화된 승객들의 모습이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할머니와 승객들 사이의 대조에 의한 연상적 비교가 일어나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한 공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김만중, 「구운몽」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두련사가 양생에게 정 소저의 '가문이 너무 높아', '신방 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양생이 두련사에게 '이번 과거는 소저의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양생이 정 소저와의 혼인을 위한 과거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생은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양생이 두련사에게 재모가 뛰어난 정 소저의 이야기를 듣고 심월이 말하던 여자임을 깨달으며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 양생이 정 소저의 높은 명성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부인이 '소저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라는 젊은 여관의 말을 듣고 정 소저를 불러내는 부분에서 부인은 정 소저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 노파가 거문고 소리를 들은 후 '우리 부인이 들으시면 부르실 법하니 두련사는 저 사람을 머물러 두소서'라고 말하고 돌아가자 두련사가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두련사는 부인이 전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다만 평생 ~ 보게 하소서'라며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고, [B]에서는 '소저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며 양생이 진정 원하는 바인 정 소저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부인으로 하여금 정 소저를 불러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양생이 거문고를 보이며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현이 아니다. 양생의 거문고가 좋은 재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부인의 말을 긍정하며 매우 귀한 거문고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①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 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속임수를 통해 긴장감이 유발되는 부분이다. ② 두련사가 '재상이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는 장면과, 계책을 이용해야만 양생이 정 소저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양생이 정 소저를 만나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양생이 정 소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 양생이 정 소저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은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